

미래의 한일관계 재건축

2021.08.17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언더우드국제대학교수

yulsohn@yonsei.ac.kr



Menu

한일관계, 갈등의 구조

국민 상호 인식

일본 신드롬과 그 결과

한일 미래 전망

미래의 재건축

수교 이래 최악의 한일관계: “잃어버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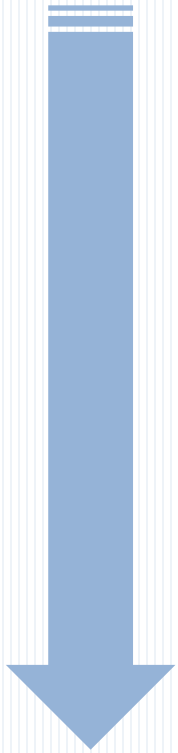
신뢰의 위기

- 이익 충돌 보다는 감정 대립
- 지도자간 소통 부재: 10년간 정식 양자 정상회담 없었음.
- 감정싸움: 상대방 비난 → 여론 악화
- 역사적 감정의 정치적 이용, 감정 대립의 악순환

정치 갈등의 확산

- 상호 불신은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 갈등으로부터 안보, 경제 분야로 전방위 확산
-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 거리 두기, 길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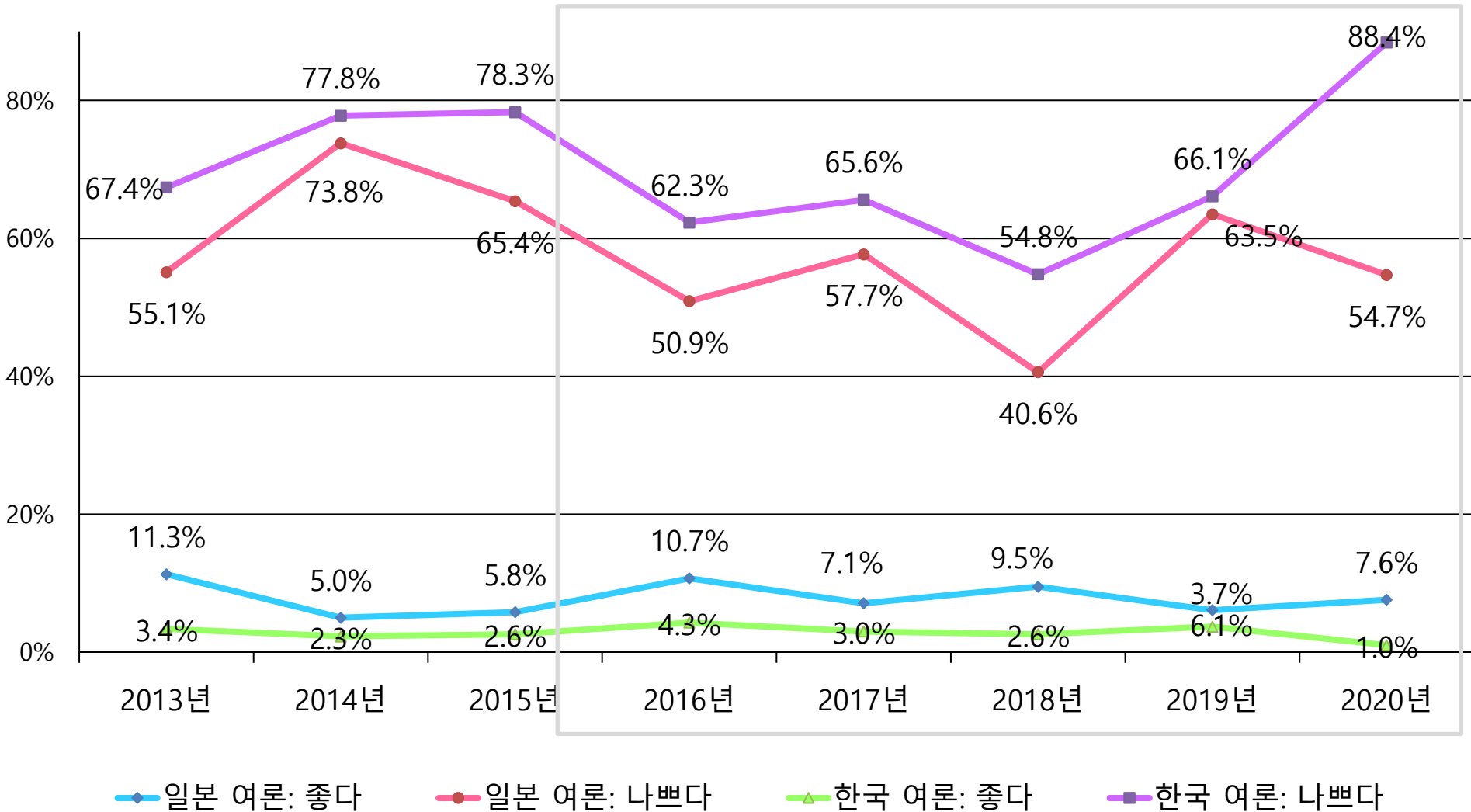
2012년 이래 구조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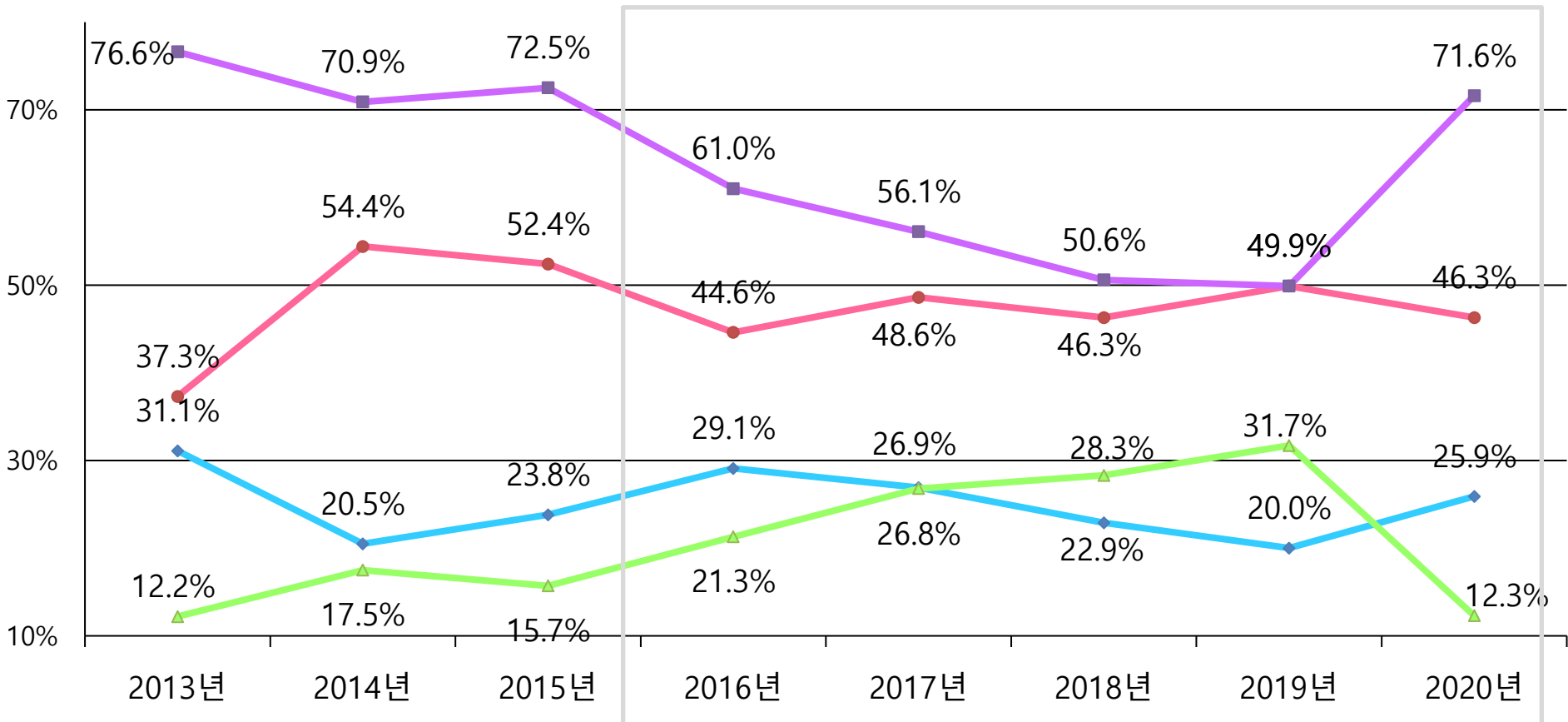
- 2012: 위안부 문제 처리 공방, 이명박 독도 방문, 천황사죄발언, 한일 통화 스와프 갱신 거부
- 2013: 아베 총리 전쟁 침략 발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2014: 고노 담화 재검토, 정상회담 거부
- 2015: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논란, 위안부 합의
- 2016: 위안부 합의 거부 논란, 부산 소녀상 건립 시도.
- 2017: 대선후보 5인 합의 파기/재협상 주장, 신정부 위안부 합의 재검토
- 2018: 제주 관함식 욕일기 논란,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동해상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진실 공방
- 2019: 무역보복 공방,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보류
- 2020: 출입국 조치 공방, 유네스코 등재 논란 재연, WTO 사무총장 선거, G7 확대 한국 참가 공방
- 2021: 위안부 판결 및 강제동원 판결(고등지방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현재의 한일관계 평가(2013-20)

EAI-Genron NPO 한일국민상호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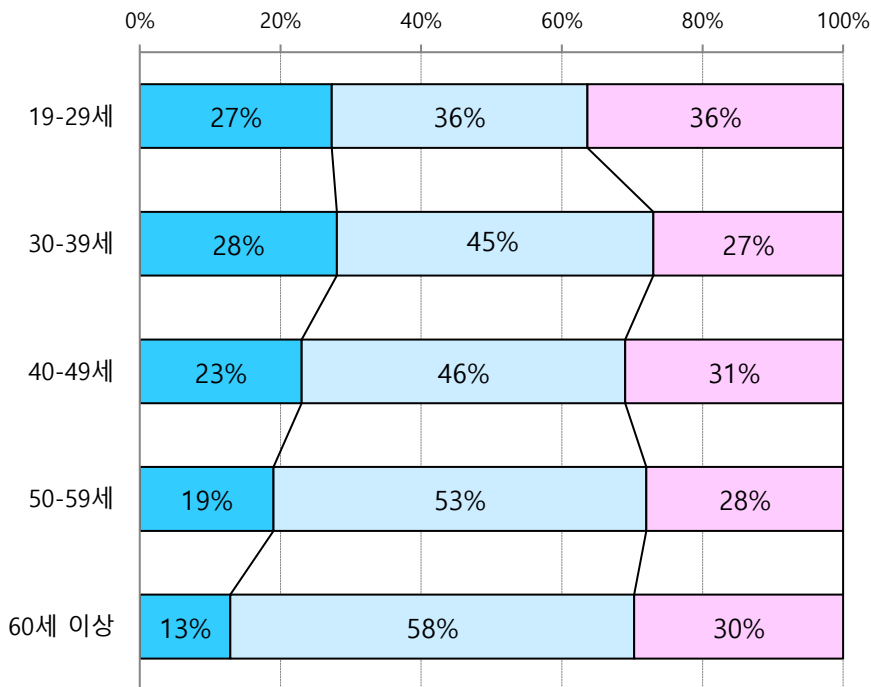
상대국에 대한 인상(호감도) (2013-20)



◆ 일본 여론: 좋은 인상
 ● 일본 여론: 좋지 않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지 않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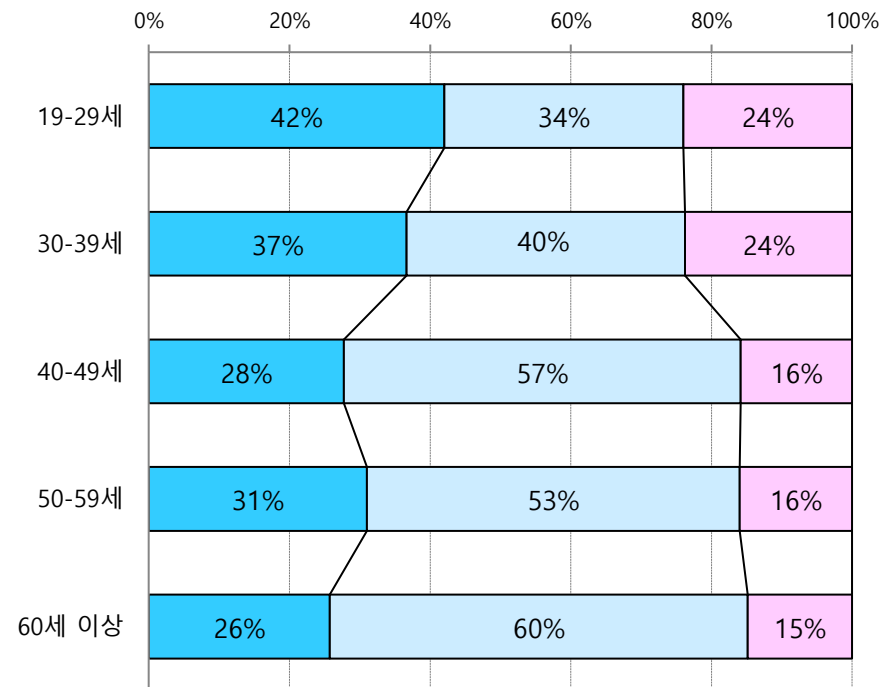
“호감도 변화를 이끄는 세대는 청년세대”: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호감도 (2019)

일본국민 (N=1,000)



■ 좋은 인상 □ 좋지 않은 인상 □ 어느 쪽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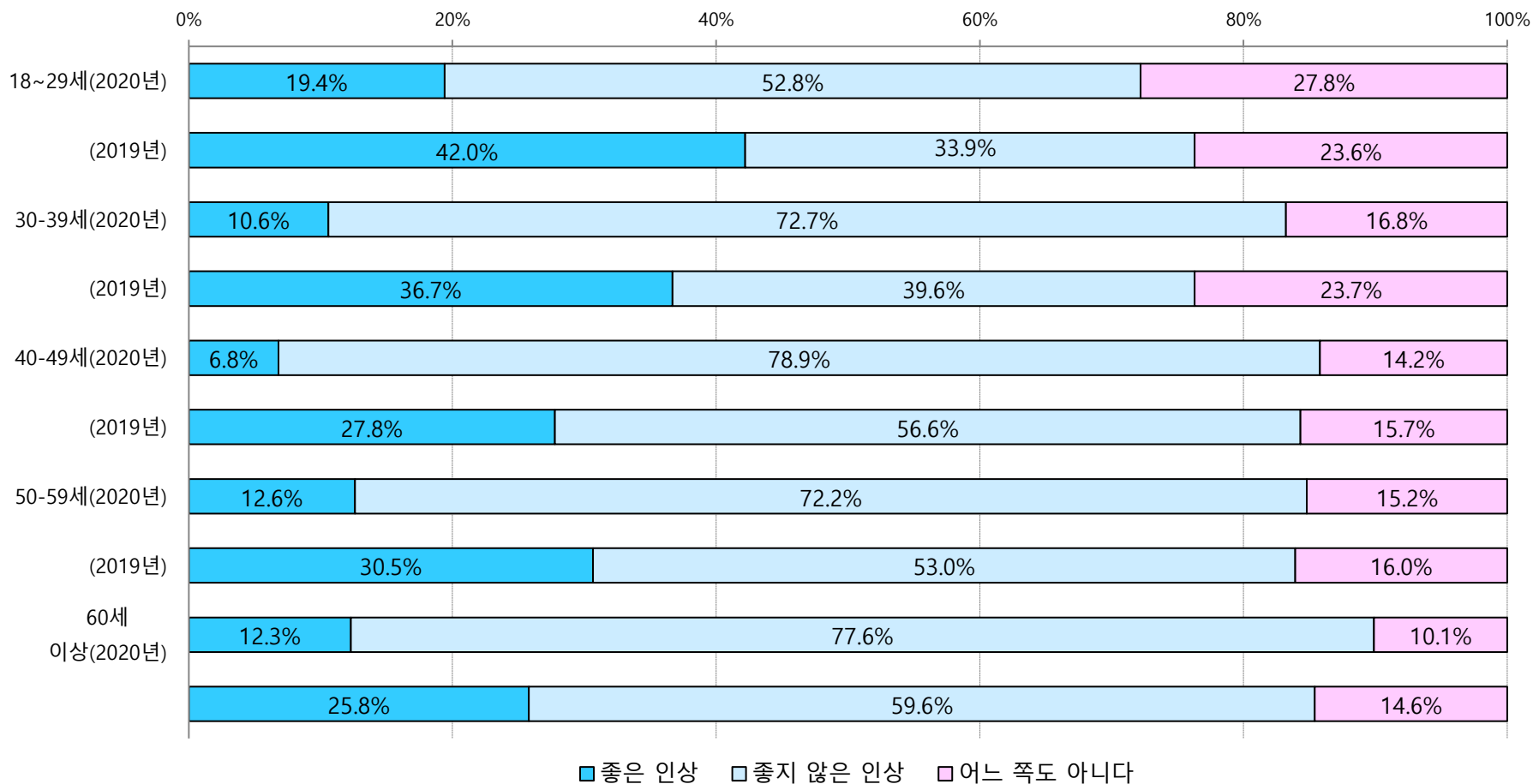
한국국민 (N=1,008)



■ 좋은 인상 □ 좋지 않은 인상 □ 어느 쪽도 아니다

한국 연령별 호감도 2019-2020 비교

한국국민 (N=1,006)



청년세대의 일본 인식

2012-2020, 역사문제는 상수.

정부간 감정 대립 vs. 청년세대 호감도 상승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2019-20 급락:

- 뿌리 깊은 반일감정의 폭발인가,
아베 정부의 불공정 대응에 대한 반발인가?

기성 세대의 반일 감정,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역사(왜곡)문제와 대일 의식

한일 갈등의 원점(原點)은 역사문제인가?
반일 감정은 역사문제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식민통치 36년 이전의 한일관계는 우호적이었나?

- 김대중: "50년도 안되는 불행한 역사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 (1998.10.8. 일본국회 연설)"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주 이용희,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 “과잉 의식”, 자기 분열적 심상
- “일본 신드롬”(Japan syndrome)
- 해바라기 현상: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문명의 중심인 중국을 향해 관심을 집중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문명 전파도(傳播度)의 우열을 가늠하고 정체성의 우열을 규정하는 경쟁을 벌임.

한국국제정치학, 미래백년의설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6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강동국

박성우

김봉진

김준석

조흥준

신병식

신욱희

손 열

김수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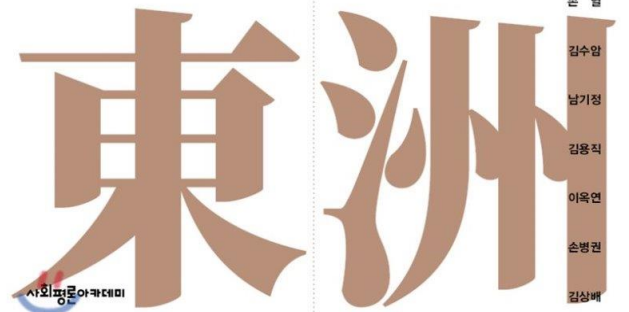
남기정

김용직

이옥연

손병권

김상배



자기 분열적 심상의 진화

한 국

전통 국제정치권(1-2-3기)

- 무관심
- 문화적 멸시감/우월감
(고려 - 왜구, 조선 - 야만/絶域)

전통국제정치권(임란 이후)

- 군사적 굴욕감(야만의 침략); 원한
- 문화적 멸시감(무력으로 굴욕 당한 반작용)
- 우월감(外藩 취급)

근대 국제정치권(4-5기)

- 군사적 굴욕감 (운양호 사건, 갑신, 동학, 청일, 러일, 식민지화) + 악덕 일본, 강압
- 근대 문화적 열등감: 일본을 통해 선진문명 흡수; 서양의 모방
- 전통 문화적 멸시감

일 본

전통국제정치권(1-2-3기)

- 선진문화국에 대한 관심
- 문화적 열등감 (문명 수용)
- 멸시감 (神國/황국관에 기초하여 "삼한 정벌"; 무력 우위 의식; 악덕의 나라 (신라); 文弱, 중국의 속국; 중국문화 모방; 여몽 침입; 대마도 점령

전통국제정치권(임란 이후)

- 군사적 멸시감(조선의 문약, 자존자대 비난); 열등감
- "조선은 길이 隣好 맺을 나라 아님" (외번 취급에 분개)

근대 국제정치권(4-5기)

- 근대적(문화적)우월감 (조선은 야만; 脫亞論)
- 전통적 멸시감 (문약, 중국의 속국)
- 무관심

반일 감정의 부상?

일본 신드롬의 뿌리

- 굴욕감, 수구감 (식민지배)
- 열등감 (문명 기준 따라잡기 의식)
- 도덕적 우월감

정치지도층에 의한 일본 신드롬과 역사문제, 정치적 이익의 결합

- “두번 지지 않는다.”
-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 “경제 침략 극복,” “탈일본 독립선언 ”



아베-스가 정권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

1. 쇠퇴하는 대국의 복고 민족주의

- 세계화 시대 일본의 상대적 쇠퇴 흐름을 돌리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재현
- 일본의 자신감 상실은 잘못된 역사교육(victor's justice), 이를 청산하고 전전 일본의 영광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정치' -> 아베와 자민당의 재집권
- 자국의 쇠퇴 원인을 주변국에 돌리려는 자세(declining giant syndrome)

2. 한국에 대한 심상

- 자국의 쇠퇴, 한국의 추격(경제성장, 한류)에 따른 심상의 변화
- 무관심에서 불안감으로
- 우월감: 메이지 영광의 재현; 한국은 일본 근대화의 희생양, 그러나 당시 국제질서(제국주의 질서) 하에서 정당한 행위 → 한국과 정체성 갈등
- 멸시감: 한국의 오만, 무례로 국가 체면을 손상할 수 없다.

3. 심상에서 정책으로: Korea bashing

- 한국과 역사 갈등을 "사죄피로," "골포스트론," "고자질 외교"로 프레임.

일본의 對韓 여론 악화

아베 정부, 2015년 기점으로 역사문제,
“수세”에서 “공세”로

-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는 국가”



정부, 자민당이 여론 주도;

여론: 역사문제를 다루는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위화감을
보임 (질문: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이유는?”)

- ‘역사문제로 일본을 끊임없이 비판하기 때문’ (52.1%),
-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24.8%),
-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 (23.2%)



아베 정부의 7.1 수출규제 조치와 상호 보복

1. 일본의 보복 조치: 반도체 소재 3품목 (핀셋) 수출규제

- 위안부 합의 형해화, 징용재판에 대한 한국정부 조치에 대한 분노
- **한국에 대한 불신 증폭, Korea passing**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조정)
- 2015년 '자유,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 삭제;
- 2018년 우호국 범주에서 제외, 안보협력 순위 강등 등 Korea passing and bashing.
- 군사력 강화(자강) + 미일동맹 + QUAD; CPTPP; 인도-태평양(FOIP).

2. 한국의 상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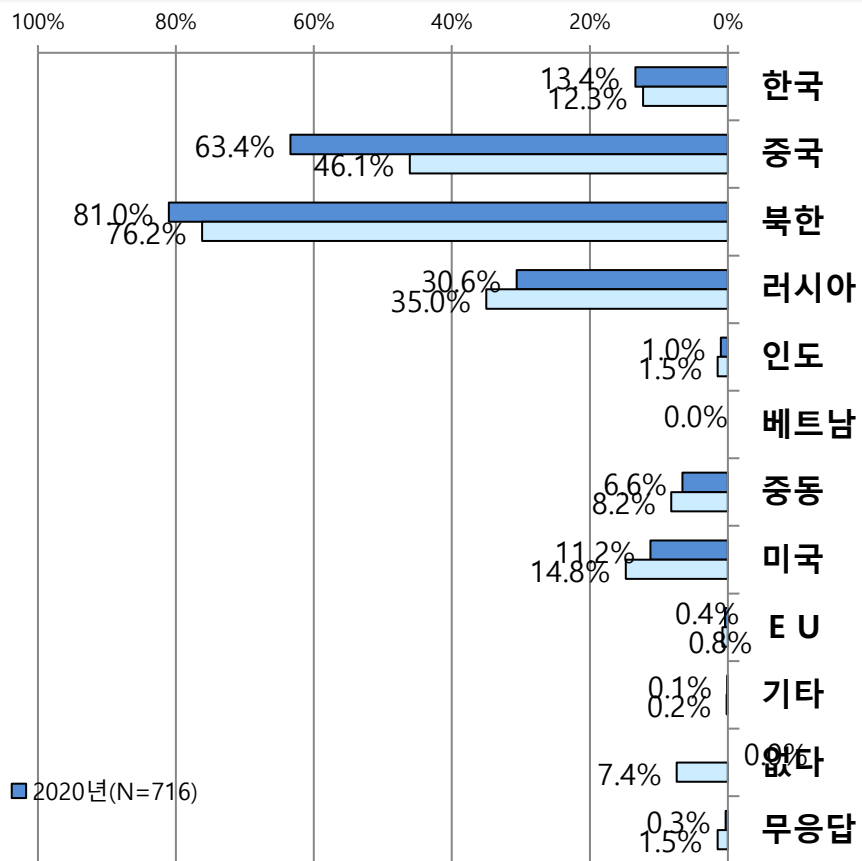
-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상호 제외
- WTO 제소
- 탈일본화 조치(소-부-장 국산화)
-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보류)

갈등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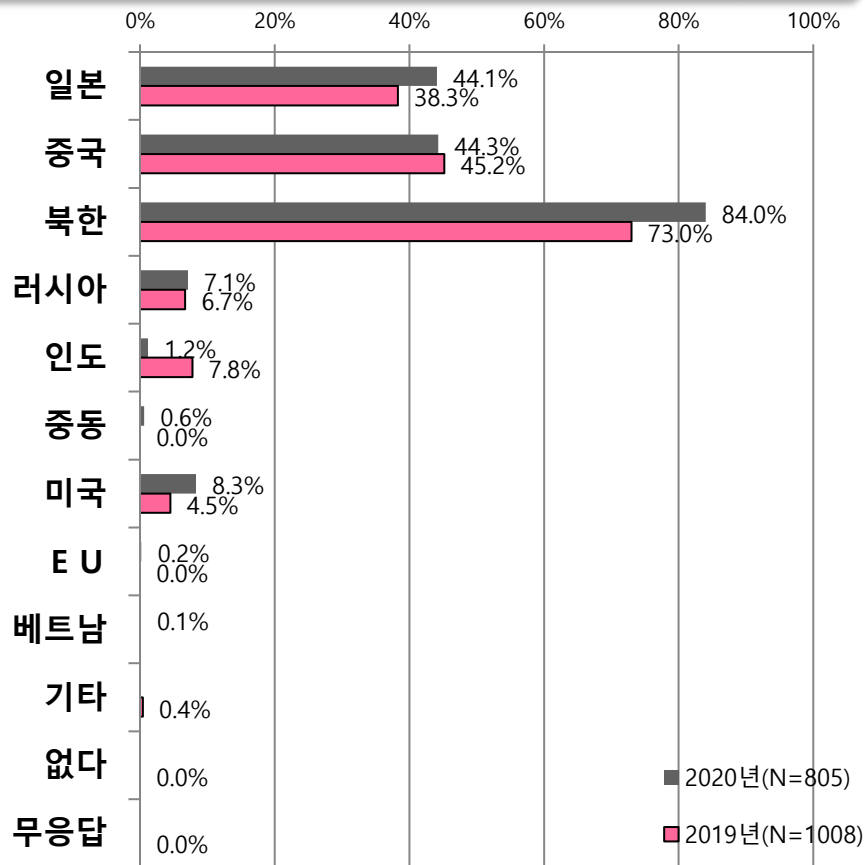
1. 대일 위협 의식 강화 →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 대북 공조 약화;
한미관계 악영향
 - 바이든 정부의 관계 개선 압력: 역사문제와 전략적 이익 분리
2. 지역 외교 위축
 - 일본 주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QUAD, CPTPP 등과 거리 두기로 역내 외교적 영향력 위축
3. 경제 손실:
 - 한일간 교역량 및 FDI 축소
 - 무역 갈등 이래 보복조치 효과 미약
4. '반일'을 이용한 기득 권익, 정치적 이익 확보 세력 온존.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국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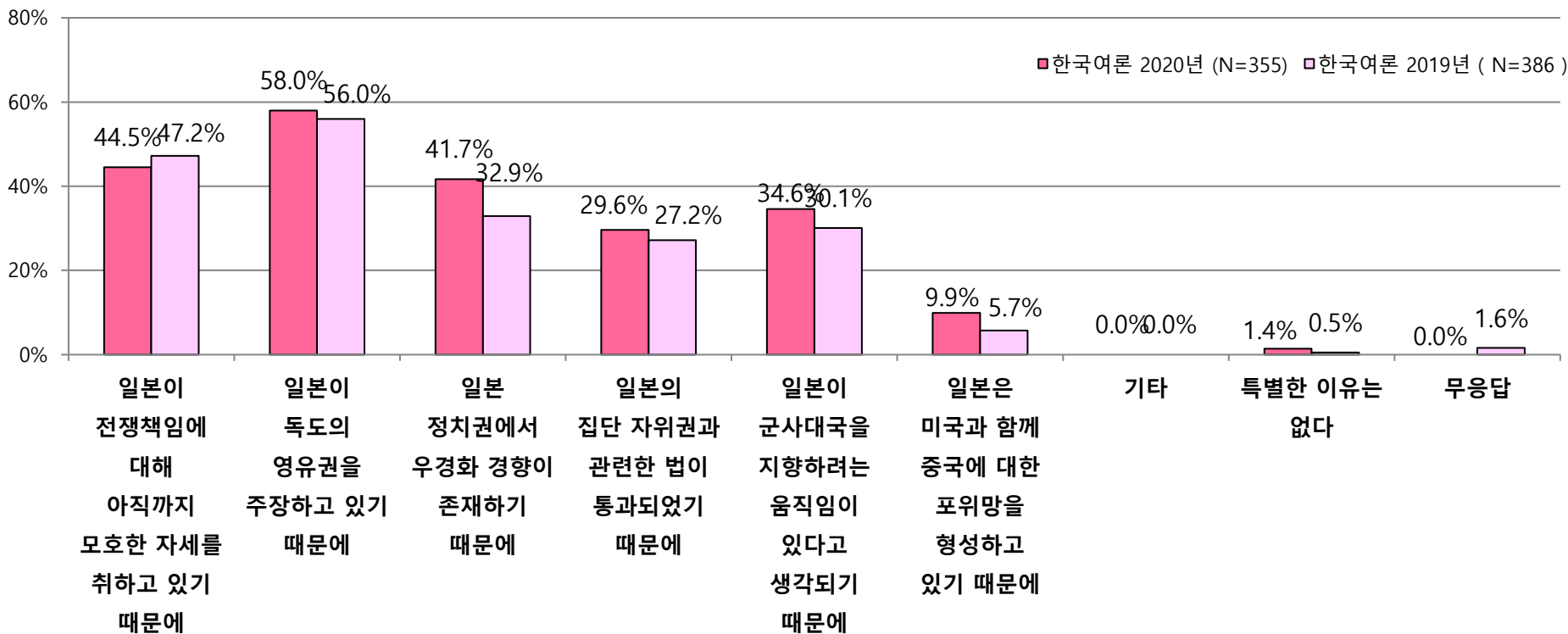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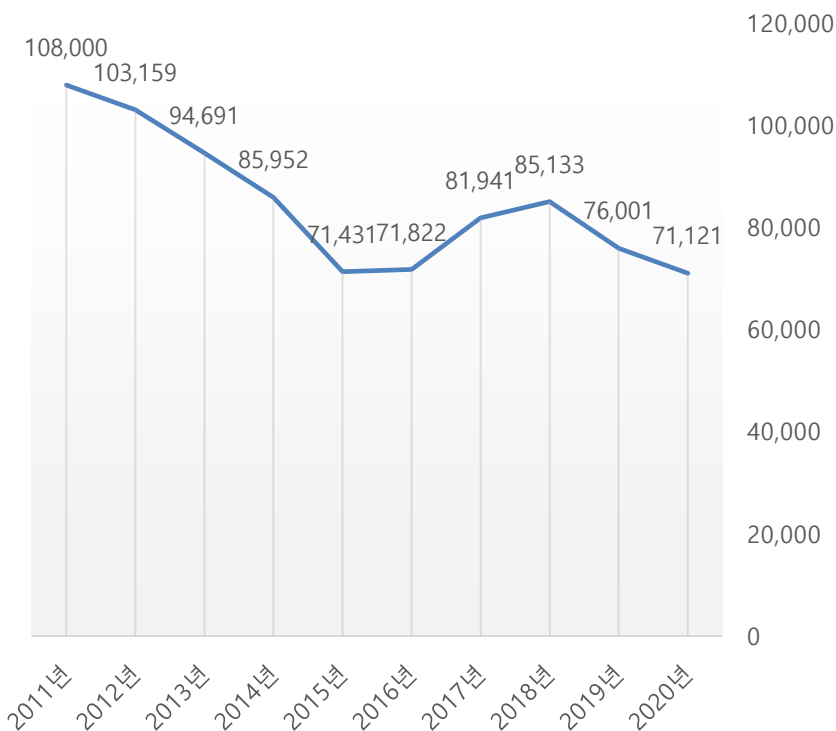
일본을 군사위협으로 느끼는 이유(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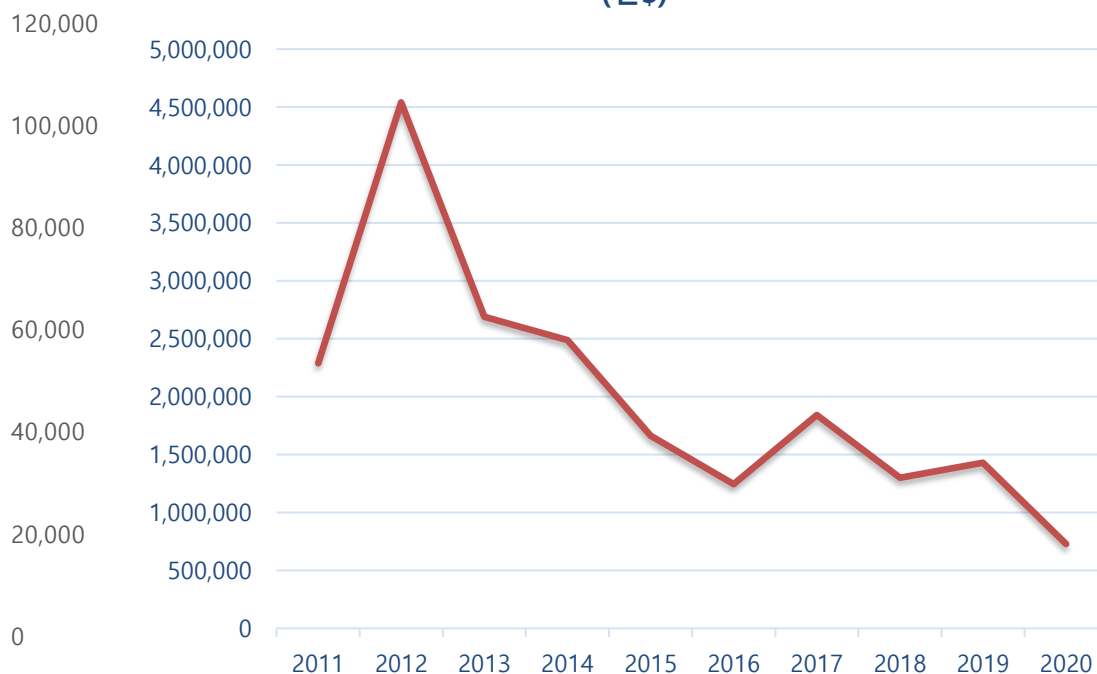
	일본이 일본 전쟁책임에 대해 아직까지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 우경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대국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특별한 이유는 없다	무응답
20년	44.5%	58.0%	41.7%	29.6%	34.6%	9.9%	0.0%	1.4%	0.0%
19년	47.2%	56.0%	32.9%	27.2%	30.1%	5.7%	0.0%	0.5%	1.6%

한일 교역 및 FDI 규모 추이(2011-20)

한일 교역규모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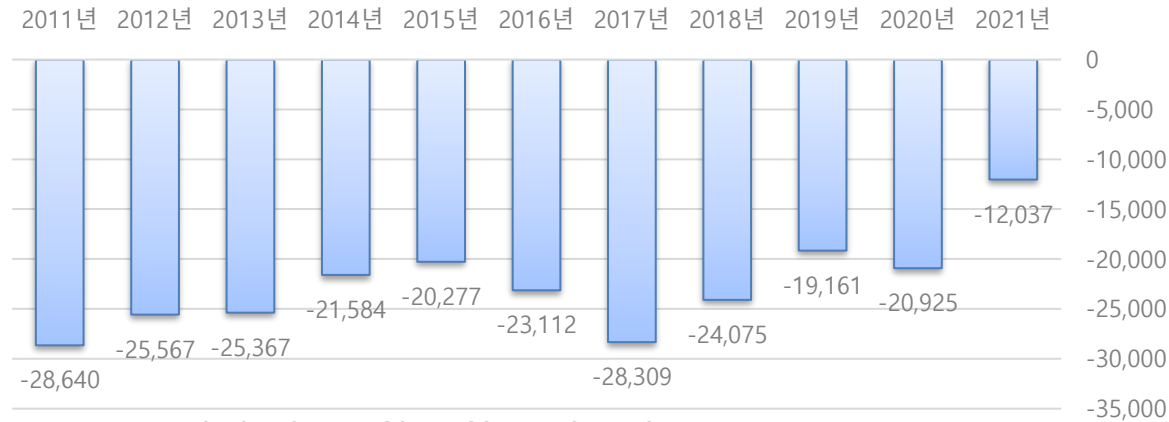


일본의 한국에 대한 FDI 신고금액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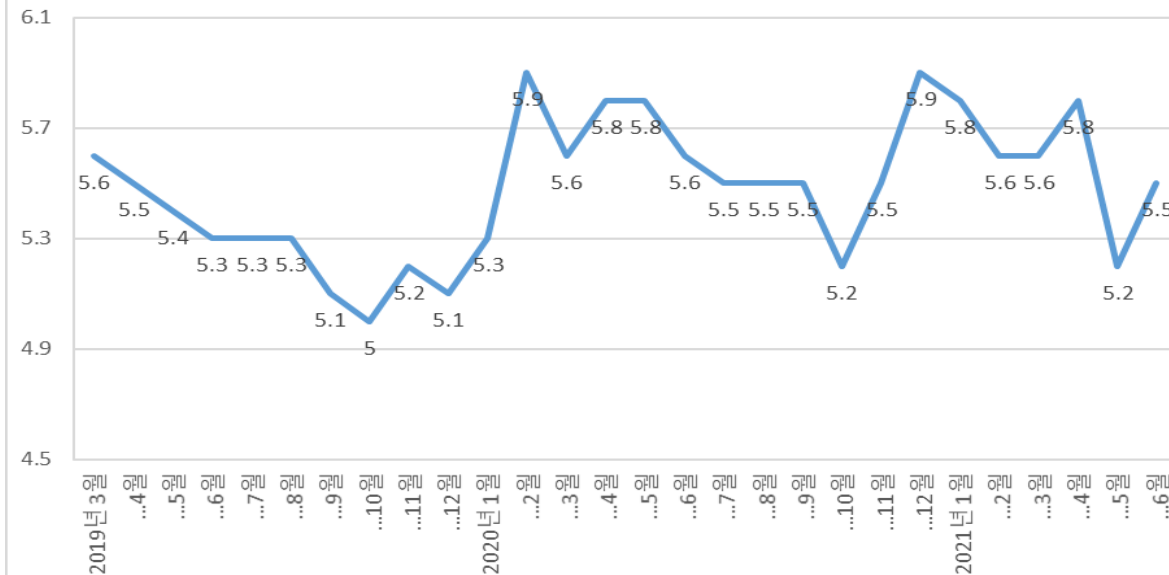
무역 보복 조치, 효과 있나? (2019-21)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백만 \$)



*2021년의 경우 1월~6월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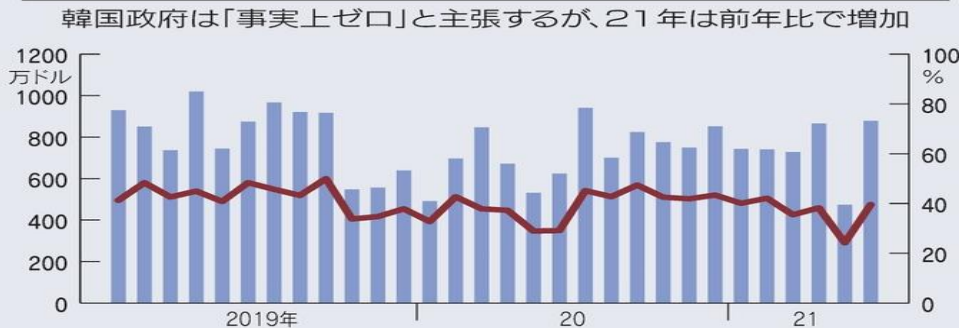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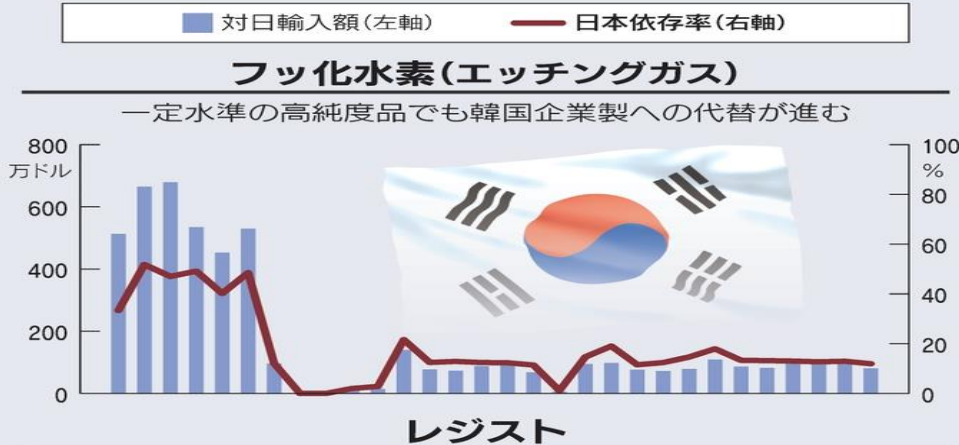
무역제재 이후 일본 무역에서 한국의 비중 (%)



경제적 상호의존과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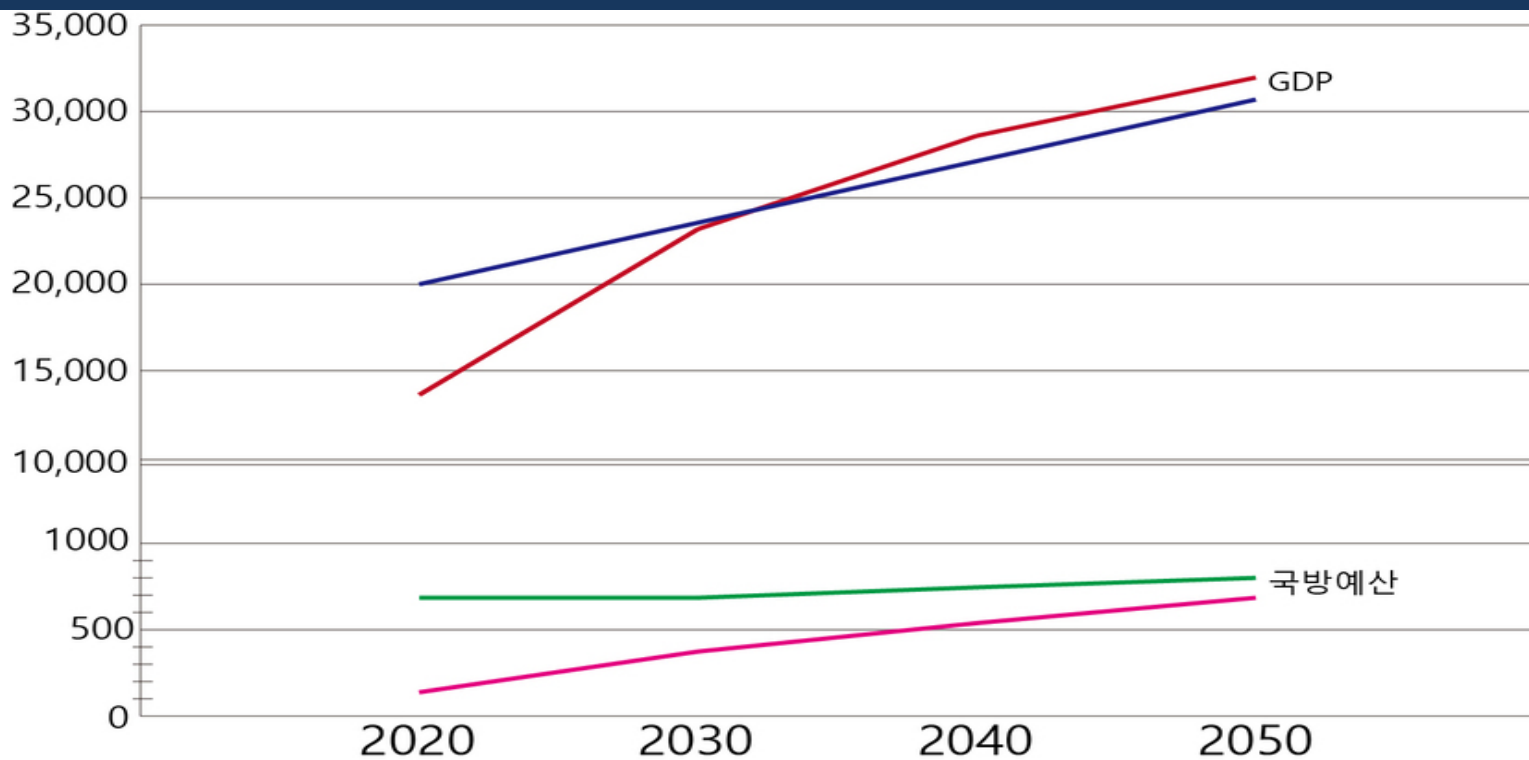
-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자립 정책" 모두 성과 의문.
- 2021년 1-6월 반도체 장비 수입 31% 증가
-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급사슬의 중심에 놓여 있는,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
- 수출 규제나 수입규제(국산화) 조치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높음.

輸出管理対象3品目でフッ化水素の輸入は減少した



(注)「日本依存率」は輸入金額全体に占める日本の比率

장기 추세 1: 미중경쟁 2030, 2050



연 도	2020	2030	2040	2050
미국 GDP	\$ 20,067,000,000,000	\$ 23,436,000,000,000	\$ 26,772,000,000,000	\$ 30,629,000,000,000
중국 GDP	\$ 13,983,000,000,000	\$ 23,126,000,000,000	\$ 28,522,000,000,000	\$ 31,484,000,000,000
GDP 內 국방예산 비율	3.5% / 1.7%	3.0% / 1.7%	2.8% / 1.9%	2.6% / 2.2%
미국 국방예산 추이	\$ 702,345,000,000 (SIPRI: \$ 778,232,000,000)	\$ 703,080,000,000	\$ 749,616,000,000	\$ 796,354,000,000
중국 국방예산 추이	\$ 237,711,000,000 (SIPRI: \$ 252,304,000,000)	\$ 393,142,000,000	\$ 541,918,000,000	\$ 692,648,000,000
국방예산 비율 추이(근사값)	3 : 1		3:2	1 : 0.87 (8:7)

장기 추세 2: 한일 힘의 균형 변화

한·일 1인당 구매력평가 기준 GDP 전망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



자료/국제통화기금(IMF)

연합뉴스

한·일 국방비 증가 추이

단위: 원 ※한국 연 6%, 일본 1.3% 증가(최근 5년 기준) 적용



① 중앙일보

김영은 기자 / 2019081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장기추세 3: 저출산 고령화와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일본과의 경쟁, 협력, 대립

-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경쟁
- 기능적 협력: 경제, 군사, 사이버 안보, 문화, 생태환경(기후변화), 보건 안보(감염증); 중견국으로서 미중 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 정체성 공유 노력
- 역사왜곡, 영토주권(독도 영유권) 부인

차기정부 대일정책

- 대국적 시야에서 한일관계 다루어야 함
- 역사 현안(위안부/강제동원) 조기에 졸업
- 지역적, 지구적 과제에 대한 공통 대처 (다자적 접근)
- 중국에 대한 시각차 조정
- 일본 신드롬 극복 (克日 vs. 克'反日'); 정체성 공유를 위한 장기적 노력

한일 협력의 방향과 신뢰구축

한미일 안보협력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
- 한반도 유사시 3국 협력

QUAD 협력

- 대중 견제 용으로부터 기능적 협력체로 전환
- 백신협력, 청정에너지, 첨단기술 plus

생산 및 기술협력

-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디커플링 압력 완화
-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구분, 한일 공동 대응

CPTPP 협력

- 규칙기반 국제경제질서의 중심축: 21세기 무역협정의 gold standard
-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규범
- CPTPP 확대·강화, 중국 관여

